

# 조선통신사

JOSEON TONGSINSA JOURNAL · WINTER 2015 겨울호

가장 빠른 <부산문화재단> 소식! 실시간 공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카카오톡 친구찾기에  
[부산문화재단]을 검색 하신 후  
친구추가를 해주세요.



부산문화재단  
최신소식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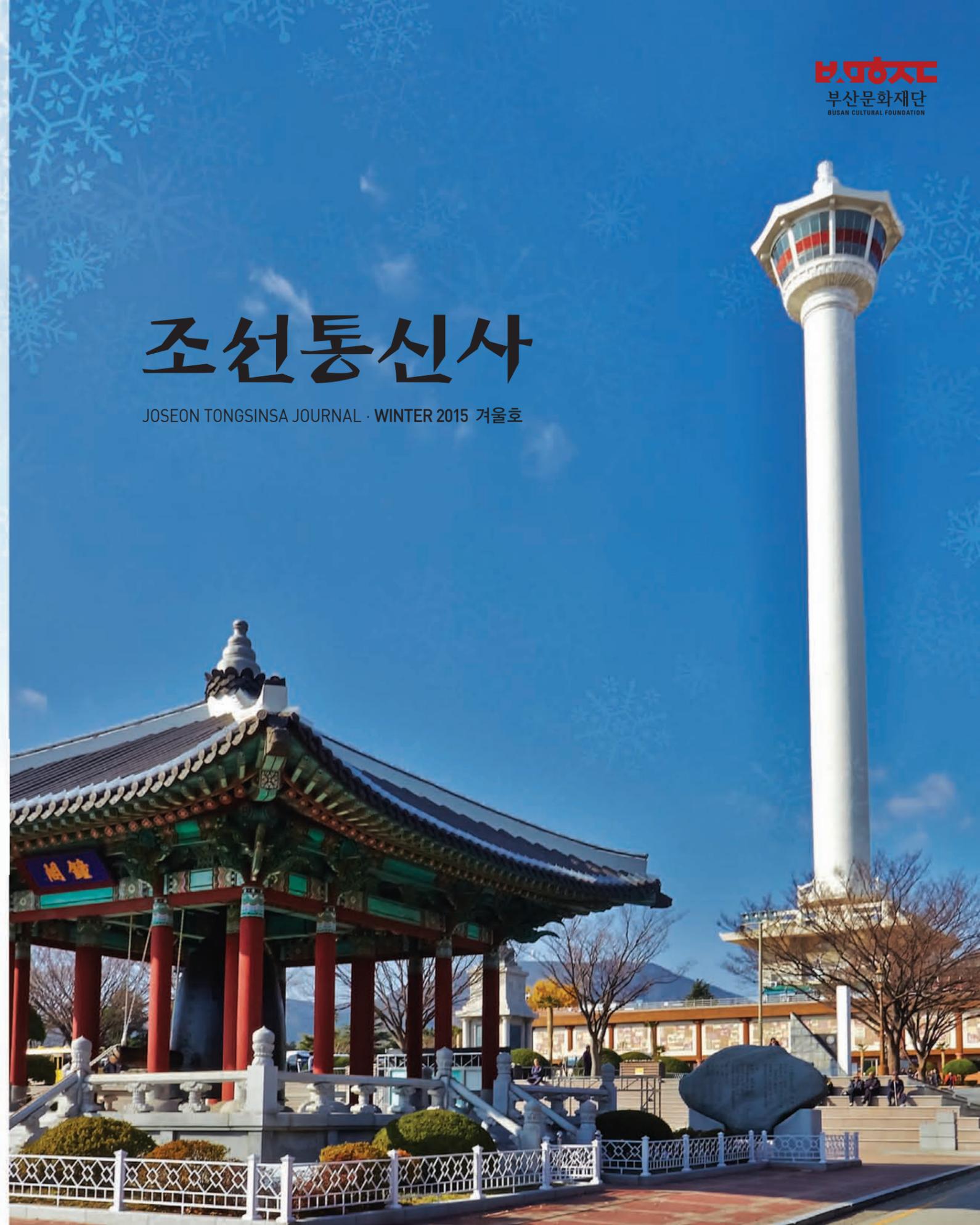
예술창작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부산문화재단



문화행사 사진은  
인스타그램으로!

#부산문화재단



# 겨울

사진 | 이키[壱岐] - 원송이 바위  
출 처 | 부산문화재단 국제협력팀장

이키[壱岐]는후쿠오카현[福岡県]과 쓰시마[對馬]의 중간지점에 있으며 현해탄[玄海灘]에 면해있다. 조선통신사 일행이 부산을 출발하여 쓰시마 다음으로 들렀던 곳으로 카츠모토힘[勝本浦]을 통해 조선통신사의 배가 들어갔다. 이키는 한일 간의 친선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 조선통신사

JOSEON TONGSINSA JOURNAL · WINTER 2015 겨울호

## CONTENTS

- 권두칼럼 **04**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과 조선통신사 사업**  
한일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세계기억유산으로!  
일한문화교류기금 이사·사무국장 | 요덴 유키오
- 성신교린 **07** **성신교린과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평화외교**  
비교문화학자·철학박사 | 김양기
- 통신사 24時 **12**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한일 공동 추진 사업**  
부산문화재단 국제협력팀
- 기획특집 **16** **통신사를 통한 상호 이해의 방식, 필담과 창화**  
선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구지현
- 조선통신사 이야기 **20** **조선통신사의 흔적을 찾아서 - 오노미치[尾道]**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한태문
- 21C 조선통신사 **24** **한지인형전은 미래의 가교!**  
NPO법인 아우드림 이사장 | 아메미야 료코
- 최화수의 문화임기 **28** **조선통신사 기록유산 '한일 공동 登錄' 기원**  
봉생문화재단 부이사장 | 최화수
- 조선통신사 NEWS **30** **조선통신사역사관 뉴스**  
부산문화재단 국제협력팀
- 그림으로 찾아가는 조선통신사 **31** **에도시대 문인화가 구사바 하이센[草場佩川]을 매료시킨 조선통신사 행렬**  
부경대 사학과 교수 | 박화진



### 〈표지 설명〉

사 진 | 용두산 공원(龍頭山公園)  
출 처 | 두손컴

조선시대 옛 초량왜관(草梁倭館)이 위치했던 곳이다. 왜관은 일본인들이 입국하여 교역을 위해 설치하였던 장소로, 사관(使館) 및 상관(商館)의 기능을 담당하였던 곳이다.  
현재 용두산 공원은 부산시가의 한 가운데 위치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찾는 부산의 관광명소이다. 2002년부터는 매년 5월 첫째 주 주말 용두산 공원에서 '조선통신사 축제'가 개최된다.

발행일 2015. 12. 21 발행인 이문섭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el 051-744-7707

편집위원 최화수(편집주간), 한태문, 김동철, 박화진, 이철호, 백태현

편집기획 국제협력팀 Tel 051-744-7707 www.tongsinsa.com

디자인·제작 두손컴 Tel 051-805-8002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자료를 재사용하려면 (재)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조선통신사 저널은 부산문화재단 및 조선통신사문화사업 홈페이지에서 웹진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선통신사 저널은 부산광역시 2015년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과 조선통신사 사업 한일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세계기억유산으로!

日韓国交正常化50周年と朝鮮通信使事業  
日韓共同努力で世界記憶遺産に!



요넨 유키오 • 일한문화교류기금 이사·사무국장  
余田 幸夫 • 日韓文化交流基金 理事・事務局長

日韓国交正常化50周年の今年、日韓文化交流基金も朝鮮通信使事業に対して積極的に取り組んできた。半年から約1年を要する500人もの大使節を、送る側も受ける側も相当の決意と覚悟が必要であった。この大交流が誠信交隣の精神で実施されてきたが故に、200年以上にわたる平和友好の時代が続いた事実を踏まえ、日韓はこの貴重な財産を世界記憶遺産に登録するという共通の目的実現のため、心を一つにして努力するこの過程が極めて重要であると思う。

## 일한문화교류기금(日韓文化交流基金)

부산은 저에게 있어서 매우 연이 깊은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신 덕분에 걱정 없이 즐거운 부산생활을 보낼 수 있었던 점, 마음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외무성(外務省)에서 퇴직하고, 같은 해 6월부터 한일문화교류기금이라는 공익재단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그때그때 정치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착실하게 교류업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심 업무는 청소년 교류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고생, 대학생, 교수를 대상으로 한 상호교류 확대, 지식인의 각종 회의 지원, 젊은 연구원들에 대한 펠로십 제공, 민간교류 증진 등입니다. 서로를 방문하며 있는 그대로를 보고, 마음의 대화를 통해 서로 공감하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의 마무리 행사로 '미래를 위하여(노래로 쓰는 한일교류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의 특별공연이 12월 17일 도쿄(東京)에서 개최되고, 한일소년소녀합창단, 예술대학의 성악가, 한일의 젊은 민속전통악기연주가 등이 음악을 통해 양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 일한문화교류 기금의 조선통신사 사업지원

올해는 50주년 기념 관련 예산이 인정되어,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 하는 위탁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통신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채택 하였습니다.

### ① 21세기 유스 조선통신사(21世紀のユース朝鮮通信使)

사람과의 교류를 중시하는 NPO가 주최, 서로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일 각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서울에서부터 최종 목적지인 도쿄에 도착한 학생들은 '한일축제 in 도쿄(日韓おまつりin東京)'(9월말, 에비스[日比谷] 공원)에도 참가하여, 개막식 단상에서 한일 학생대표가 정사역할과 소군[將軍]역할로 선언문을 교환하고, 공원 안을 옛 조선통신사 복장으로 퍼레이드를 진행하여 관객으로부터 감동의 큰 박수를 받으며 조선통신사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 ② 한일 대학생 조선통신사 교류(日韓大学生朝鮮通信使交流)(2건)

자매관계인 한일의 대학이 주최하고, 한일 학생들이 함께 서울에서 도쿄까지 통신사가 지나왔던 주요 연고지를 방문하며, 조선통신사(일본 관계자 포함)가 맡은 역할의 현대적 의미를 생각하는 주제로 실시되었습니다.

### ③ 두 바퀴로 달리는 신조선통신사(両輪で走る新朝鮮通信使)

자전거의 두 바퀴를 한일관계에 빚대어 한일 25명씩, 50명이 통신사가 걸었던 서울에서 도쿄까지의 거리를 달렸으며, 마지막에는 도쿄도청 앞 광장에서 통신사의 의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본 기금은 두 바퀴로 달리는 신조선통신사에서 한일청소년 관련 경비를 지원)

### ④ 한일 대학생 서도교류와 세이켄지(日韓大学生書道交流と清見寺)

한일의 공동 문화인 서도를 통한 첫 교류. 이 서도교류에는 한국의 부산대를 비롯하여 5개 대학의 서도부 학생 20명을 일본으로 초대하여, 일본 학생(25개 대학, 44명)과 서도교류전을 개최하는 한편, 시즈오카현(静岡県)에 있는 세이켄지(清見寺)를 방문했습니다. 세이켄지에는 통신사가 5회에 걸쳐 방문하였고, 귀중한 편액(扁額)과 서화(書畵)가 가장 많이 보관되어 있으며, 본당에는 다수의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17~18세기에 정사를 시작으로 한 인사들이 숙박하였고, 바다와 정원을 바라보며 시를 읊거나 서도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었던 귀중한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가 흔을 담아서 쓴 편액은 한일 학생들에게 좋은 자극을 주었고, 그것이 미래의 한일관계에 대해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 필자와 조선통신사

필자는 여유로운 여행을 좋아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조선통신사가 다녀간 많은 장소를 방문해 왔습니다. 일본의 연고지 중에서도 시모카마가리[下蒲刈]는 음식, 도모노우라[瀬の浦]는 경치, 우시마도[牛窓]는 춤이라는 특색이 있습니다. 교통이나 호텔에 불편함은 있었지만 당시 통신사의 상황을 혼자 상상하며 꿈을 부풀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 밀양의 송운대사(松雲大師)와 신유한(申維翰) 제조관(製造官)의 생기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후지산[富士山]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 싯타고개[薩田峠]에 통신사 등의 인사를 위해 만들어진 산길은 고개입구 근처부터 급경사와 좁은 길이 계속되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당시 500명의 통신사와 이를 수행하는 1천~2천 명의 일본인, 천 마리의 말, 정사(正史) 등의 가마와 많은 짐을 짊어진 사람 등 장시간 모두가 땀 범벅이 되어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좁고 경사진 길은 서로가 양보하고 협력하는 관용의 정신이 필요한 곳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한일간의 좋은 팀워크가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 ❁ 한일 양국민에 의한 세계기억유산등록을 목표로

무엇보다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605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와 송운대사가 교토에서의 면담을 통해 전후(戰後) 처리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시작된 조선통신사는 초대하는 쪽도 받아들이는 쪽도 상당한 결의와 각오와 노력이 필요했고, 반년에서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드라마가 실현되었습니다. 서로가 근본적으로 평화에 대한 생각이 강했고, 성신교린(서로 속이지 않고, 다투지 않고, 진실을 가지고 교류)의 정신이 있었기에 무거운 역사를 극복하고 200년 이상에 걸친 평화우호라는 최고의 가치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일 양국이 민간차원으로 15년 전부터 양측에 존재하는 조선통신사 기록을 연구하고, 연고지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등의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에 등록하려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끈기 있게 꾸준히 계속 진행해 온 양국의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과거 200년 동안 평화를 구축해 온 선인들의 지혜와 위업을 양국 국민에서 아시아로, 나아가서는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양국 국민이 합심하여 뜨거운 땀을 흘리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는 향후 한일관계의 방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산문화재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 성신교린과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평화외교

## 誠信交隣と德川家康の平和外交



김양기 · 비교문화학자·철학박사  
金兩基 · 比較文化學者·哲學博士

德川家康が大御所としてすごした静岡には清見寺を中心に朝鮮通信使の文化遺産が多数あり、清見寺の遺物は静岡県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る。その静岡で朝鮮通信使の歴史が再発見されるのは21世紀に入ってからである。東海道400周年記念事業がその契機になった。朝鮮通信使の両国往還が東海道を国際ロード・歴史ロード・文化芸術ロードへの発展に大きく寄与したと委員会で提案したのがその契機になった。通信使の道をピースロードと名付けて関東・関西・九州で日韓トンネルを講じたりもしている。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세키가하라[関ヶ原] 전투에서 이긴 직후, 쓰시마[對馬] 번주에게 조선왕조와의 국교회복을 은밀하게 명했다. 몇 년 후인 1607년에 제1회 조선통신사가 왕도(王都) 한양(漢陽)과 에도[江戸]를 왕래하며, 260여 년간 양국의 선린우호가 이어졌다. 이웃나라와 200년 넘게 선린우호를 지속한 역사는 세계에서 희귀한 일이며, 과시할만한 보배이다. 필자는 조선통신사 역사와 만난 것을 운명이라고 느끼고 있다. 와세다[早稲田]대학 시절, 도쿄(東京) 칸다(神田) 진보초[神保町]에 있는 헌책방에 졸업논문 자료를 찾기 위해 갔을 때의 일이다. 『역사지리 임시증간 조선호(歴史地理臨時増刊朝鮮號)』라는 일본역사지리학회 기관지의 한국명함기념 특집호가 눈에 띄었다<sup>1)</sup>. 그 책에는 「에도시대 조선사절 내조회권[江戸時代朝鮮使節來朝繪卷]」<sup>2)</sup>에서 옮겨진 「국서를 실은 가마」, 「옥교 위 정사」 등 8장의 그림이 있었는데, 해설을 몇 번이나 읽었으나 그 의미를 알지



역사지리 임시증간 「조선호(朝鮮號)」 정정 메이지 43년 (1910년) 11월 3일 발행

1) 그림 두루마리는 「아키모토(秋元) 저작 소장」  
2) 1910년 11월 간행



세계기억유산등재를 위해서 피스 로드, 피스 바이크, 한일 통로 등 활발한 민간교류실시

못하여 책장에 다시 꽂아 넣었다.

1965년 서울 서라벌예술대학에서 초청받아 귀국했을 때, 서울의 고서(古書) 거린인 인사동에서 임시증간호(臨時增刊號) 영사본을 발견하였다. 「도쿠가와시대 초기의 한일관계」<sup>3)</sup>와 「에도시대 조선사절의 내조(來朝)에 대하여」<sup>4)</sup>를 읽었지만, 문장 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무력의 교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평화외교, 평화주의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기에 정독하려고 책을 구입했다.

그리고 동료 한국사학자에게 도쿠가와 막부를 방문했던 조선사절과 그 정사, 그리고 국서가 무엇인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조선왕조와의 평화외교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하지만 그 대답이 걸작이었다. “우리들은 한국사를 전공하고 있다. 그런 우리에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왜 하는 거냐” 라는 책망을 들었다.

조선통신사의 역사와 이 같은 신기한 인연은 필자가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이 가능했고, 친구들로부터 조선연극을 테마로 한 졸업 논문을 쓰는 것이 어떠한 적극적인 권유로 진보초 고서거리에서 자료를 찾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조국(한국)과 정주국(일본)을 공유하면서 사색하게 된 원점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과 한 민족의 해방을 동시에 경험 한 것에서 시작됐다. 국민학교 고학년이었던 나는 일본 천황의 패전을 알리는 옥음방송을 일본인과 조선인들 사이에서 함께 들었다.

일본인은 울면서 듣고 있었고, 일본인이면서 조선인이라 불리던 한민족들은 미소를 억누르며 일본인에게 작은 목소리로 해방과 독립이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모두 처음 듣는 단어였기에 의미를 알 수는 없었다. 와세다대학 학생이 “일본은 패전했지만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독립하였다. 잘 됐다” 고 말해 주었다.

패전이 진다는 의미라고 처음 알았지만 해방과 독립의 의미는 전혀 몰랐다. 그날 밤 한민족들이 우리 집에 삼삼오오 모여 직접 만든 술과 음식을 가져와서 잔치를 열었다. 조선민요를 한국어로 부르며 접시와 그릇을 높이 올리고 젓가락으로 두드리며 ‘쾌지나칭칭나네’를 합창하면서 노래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해방만세”, “독립만세”를 외치며 양손을 들고 서로 기쁨을 나눴다. ‘쾌지



3) 『초지 천노스케(辻義之助), 원고  
 4) 『후지타 스스무(藤田進), 원고  
 5) 출저 『한국인인가 일본인인가~지금이야말로 재일동포문화의 상징을』 사이마루(サイマル) 출판, 1976년 간행

나칭칭나네’가 민요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나의 복안사고(複眼思考)가 생겨났다<sup>5)</sup>. “김양기 = 생활체험(일본 출생, 성장)+지적 체험(조국 각지를 걷다+데스크 워크)”의 도식처럼 내 안에 두 나라가 공생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조선통신사에 대해 물었지만 답을 얻지 못한 필자는 해방 후부터 10년간 한국인이 쓴 한국사 책에서 그 대답을 찾아보았다. 우선 해방 후 처음 출판된 최남선의 ‘국민조선역사(國民朝鮮歷史)’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바람으로 1607년 국교가 회복됐다. 그 후 200년간 평화로운 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되어 있었고, 200년간 평화시대가 이어졌다는 몇 줄이 쓰여져 있는 정도였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선조왕 편을 보면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국교회복의 요구에 대한 조선왕조의 논의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그 단계에서 나는 조선통신사의 역사가 사실이었음을 확신했다.

1987년 필자는 시즈오카(静岡)현립대학 교수로 부임하였고, 통신사의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세이켄지(清見寺)를 찾았다. 경내에는 통신사에 관한 안내문이나 설명은 전혀 없었고, 본전 벽에 통신사의 시문이 새겨진 판을 발견했다. 그 후 시즈오카의 일본 시민과 재일동포들에게 조선통신사에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듬해 시즈오카 방송국(SBS)으로부터 서울올림픽에 대한 한일시민의 텔레비전 중계의뢰가 들어와서 맡기로 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 세이켄지의 통신사 문화유산을 찍어서 서울 MBC스튜디오에 모여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방송 5분 전 디렉터가 영상의 질이 좋지 않아서 방송에 내보낼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방송되지는 않았다.

1년 후 당사자로부터 조선통신사의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촬영하러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세이켄지의 단가(檀家) 대표를 비롯하여 시즈오카 시장과 지식인들에게도 물어 보았지만, 통신사에 대해 아무도 몰랐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시즈오카시에 그치지 않고 강연 등을 통해 도카이도(東海道)를 국제적인 길, 평화의 길, 역사적인 길, 문화예술의 길로 발전시킨 것은 조선 통신사의 왕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도쿠가와 막부는 각지에 통신사의 왕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세이켄지 근처에 있는 샷타고개(薩埴峠)는 조선통신사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해보았다. 그러자 “조선통신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돌아 왔다. 이러한 활동을 반복하는 가운데, 시즈오카현(静岡縣)이



통신사의 당시 자취를 방문하다.(샷타고개)

주최하는 '도카이도 40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발족되고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도카이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조선통신사의 왕래 이야기가 행정(行政)에까지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위원회에서 '도카이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조선통신사의 역사를 재발견하기 위한 재현행렬의 지원'을 제안했다. 다른 현에서 참가한 위원 1명만이 큰 소리로 찬성 했고, 반대 의견이 없었기에 지원이 결정됐다.

위원회에서 지원금을 받고 부족분은 기부를 받는 방식으로 2001년 시즈오카 시청 가까이에 가설무대를 설치하고, 코지마 젠키치(小嶋善吉) 시장이 일본측 대표(少将[將軍] 역할), 필자가 정사 역할을 맡아 국서교환식을 가졌다. 이것은 1811년 마지막 조선통신사 왕래이후 처음 시즈오카에서 열린 조선통신사 행사이다.

제1회 행렬재현의 실행위원회는 일본 시민단체인 '시즈오카에 문화의 바람을(静岡に文化の風を)'이라는 모임이 주체가 되었고, 여기에 재일동포(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시즈오카 본부) 대표자도 참가하였다. 농악과 춤 등은 조선학교 학생들이 맡아 주었다. 그 행사는 일본행정 및 일본시민과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시즈오카 본부 임원 및 단원, 그리고 재일본 조총련 시즈오카 본부 임원 및 조선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첫 사업이 되었다. '시즈오카에 문화의 바람을 모임'은 필자가 이름을 짓고, 발족의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 2005년 필자는 서울에서 네티(日光)까지 통신사가 걸어간 길에 대한 이벤트를 시즈오카현과 시즈오카시에 추천했다. 그것이 성공리에 끝났고, 그 전후부터 세이켄지에 대한 관심이 한국에서도 높아졌고, 2006년에 주일본 한국대사관 사람과 동아일보 도쿄 지사장이 세이켄지의 통신사 문화유산을 보기 위해 방문했다. 두 사람은 유물을 바라보며 "우리만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며, 이 사실을 이치조 후미아키(一條文昭) 주지사님에게 전달하자 "기회가 된다면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회답을 들었다.

동아일보에 보도된 기사를 이치조 후미아키 주지사님에게 전달하고, 나는 시즈오카현의 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 관계자와 연구원을 모아 세이켄지 이름으로 신청했다. 내가 시즈오카현 교육감과의 질의응답 역할을 맡아 진행하였고, 몇 달 후 시즈오카현의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항상 통신사 사업은 한일 양국이 관련되었고, 그것은 운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06년에는 부산 사단법인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 강남주 집행위원장이 세이켄지에 소장되어 있는 통신사의 문화유산을 도록으로 출판하고 싶다고 제안했고, 코지마 젠키치 시즈오카 시장이 공동출



효종 을미(1655) 사행의 정사 취병 조형(趙珩)의 필자



조선통신사 재현행사를 평화의 등으로 상아등 건립

판을 제안하여 『세이켄지 소장 조선통신사 유물도록』이 출판되었다. 필자는 시즈오카시 측에서 편집에 참가하였고, '조선통신사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평화외교'를 기고하며 이에야스의 평화외교를 한국에도 선전한 것이 한일양국의 행정이나 언론 등에서 사용되게 되었다. 시즈오카현대학 도서관장회의에서 이에야스의 평화외교와 시즈오카에서 필자가 해온 일을 말했다. 이에야스의 혼령이 필자를 시즈오카로 초대했다는 말에 회장의 관객들이 폭소했다.

도카이도와 인접하여 세워진 세이켄지에는 수많은 통신사의 묵서(墨書)가 걸려 있다. 절의 문에는 현덕윤의 '동해명구(東海名區)'라는 글자가, 본전 앞에는 '흥국(興國)'이라는 글씨가 쓰여진 판이 걸려 있다. 흥국 옆에 쓰여진 '조선정사취병(朝鮮正使翠屏)'이라는 서명을 명확히 읽을 수가 있다. 1995년경에 알게 되었는데 시즈오카의 향토 역사가인 요네다 카즈오(米田一夫)가 저술한 『에도시대의 조선 통신사와 아가리에(東江), 스루가(駿河)』가 1988년에 출판되었고, 이에야스의 국교회부를 은밀하게 명령했다고 기록된 '즈코이치란(通航一覽)'의 문장을 인용했다. 이러한 연구와 움직임이 있었으나, 책이 출판되고 몇 년 후 저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불행히도 필자와의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7년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일본시민, 재일동포가 조선통신사 4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조직하고, 내가 위원장으로 행렬재현을 실시하게 되었다. 첫날은 이시카와 요시노부(石川嘉延) 시즈오카현 지사가, 다음 날은 코지마 젠키치 시즈오카 시장이 조선왕조의 국서를 받는 일본의 쇼군역할을 하고 정사역은 재일 요코하마(横浜)총영사관 총영사와 민단 시즈오카 본부 의장이 맡았다. 같은 지역에서 이들 연속으로 통신사 행렬을 진행한 것은 시즈오카가 유일했고, 좋은 날씨 덕분에 성황리에 끝나칠 수 있었다.

그해 통신사가 자주 들렀던 호타이지(宝善寺)로부터 400년 기념으로 한국의 석탑을 모델로 한 상야등(常夜燈)을 건립하고 싶다는 상담이 있었다. 한국의 국보인 고려석탑을 모델로 하고, 한국 화강암으로 만든 이 상야등을 '평화상야등'이라 이름 짓고 히로시마(広島) 원자폭탄의 날에 불을 켜다. 본전 정면에 건립하여 매년 평화기원을 위한 축제를 열고 있다. 2008년 재일 한국대사 유명환(柳明桓) 씨가 시즈오카를 방문했을 때, 호타이지 평화상야등에 대사(大使)와 이시카와(石川) 지사 등 저명인사가 평화상야등 주위를 둘러쌌다.

2008년 이후에는 시즈오카시 오키즈(興津)에 있는 NPO법인 AYU드림(이사장 아메미야 료코)이 주최하고, 국서 가마를 시대적인 고증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제작하는 등 처음으로 양국 공동작업이 전개되었다. 2011년부터 시즈오카 축제의 행렬재현에서 사용되었고, 축제의 메인이벤트가 되었다. 이러한 축제를 알리고, '이에야스 공과 송운대사의 만남을 통해 통신사가 파견되었다.' '국서가 주역이', '국서의 위조나 개찬(改竄)은 일본 측의 내부문제로, 국가 마찰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제1회 조선통신사 재현행사 모습



통신사 연구자인 세이켄지 관광안내판 작성에 감독관으로 참가



#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한일 공동 추진 사업

朝鮮通信使の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登録への日韓共同推進事業

부산문화재단 국제협력팀  
釜山文化財團 國際協力チーム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 활동은 2012년 5월 조선통신사 축제의 환영만찬회에서 “조선통신사를 한일 양국이 힘을 합쳐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은 어떨겠습니까.” 라는 당시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제안에 일본 측 관계자도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기로 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사실, 이때 조선통신사를 유네스코에 등재하자는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니었다. 그 이전에도 한일 양국에서는 조선통신사를 매개로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조선통신사를 유네스코에 등재하자는 이야기도 오고 가긴 했었다.

그런데 그 제안 이후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된 배경에는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한일 양국에 있어 기념할 만한 시기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양국 간의 관계를 잘 이어줄 매개체가 바로 “조선통신사” 이고 과거 조선통신사를 통해 평화 구축 및 문화교류를 한 사례는 한일 양국을 넘어 전 인류가 공유하고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당초 민간에서는 등재 분위기만 조성하고, 양국 정부 차원에서 공동 등재 추진을 목표로 하였으나, 양국가간 외교 경색으로 2014년 3월 한국 측은 부산문화재단이 조선통신사 연지연락협의회(사무국 쓰시마시 소재)가 주도하여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양국의 민간단체가 추진하기로 합의 한 이후는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가 2014년 5월에는 일본 측 추진 부회가, 6월에는 한국 측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양국의 학술전문가로 구성된 학술위원회도 구성이 되었다. 이후에는 학술위원회를 중심으로 1년 간 한일 양국을 오가며 10차례의 한일 공동 학술회의를 통해 한일 양국의 등재 신청 대상을 선정하고 공동의 신청서 문안을 작성하는 등 상호 의견 조율을 통해 공동의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지금까지의 활동 사항을 바탕으로 지난 12월 8일에는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 추진경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양 측이 조율하고 합의한 사항과 추진 경과를 공유하였다. 보고회에는 부산광역시 서병수 시장을 비롯한 한일 양국의 많은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정의화 국회의장, 정우택 의원, 정병국 의원, 일본의 카와무라 타케오 의원(조선통신사의원 교류회 회장)은 축하 영상 메시지를 나가사키현의 나가무라 호우도 지사와 시모노세키시의 나카오 토모야키 시장은 축하 서신을 보내와 깊은 관심을 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신청할 한일 양국의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의 선정 기준과 과정, 그리고 선정된 기록물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현시점에서 확정된 신청 대상 기록물은 한국 59건 120점, 일본 47건 195점이다. 기록물 한 건 한 건의 자료카드를 작성하고 영문번역 작업을 거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예정으로 2016년 3월까지 남은 기간 최선의 준비를 다 해야 하겠다.

앞으로도 한일 양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 노력해 간다면 아시아권 최초로 양국 간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목록



## | 한국측 등재 신청 목록(안) \_ 총 59건 120점 |

### I. 외교기록 (2건 32점)

NO	건명	사행연도	제작자	제작연도	수량	소장처	비고
1	通傳使啓錄	1607	禮曹	1641-1811	14	규장각	
2	禮例彙集		禮曹 典客司	1841 以後	18	규장각	

### II. 여정의 기록 (38건 67점)

#### 1. 통신사행록 (32건 58점)

NO	건명	사행연도	제작자	제작연도	수량	소장처	비고
1	慶七公海錄	1607	嚴濩	1607	1	국립중앙도서관	
2	吳秋葉東遊上日記	1617	吳允謙	1617	1	국립중앙도서관	
3	李石門扶桑錄	1617	李贊復	1617	1	국립중앙도서관	
4	東遊日記	1617	林緯	1617	1	규장각	
5	張弘重東遊錄	1624	張弘重	1624	1	국립중앙도서관	
6	任參判丙子日本日記	1636	任統	1636	1	국립중앙도서관	
7	金東溟海遊錄上·下	1636	金世謙	1636	2	국립중앙도서관	
8	金東溟遊錄上	1636	金世謙	1636	1	국립중앙도서관	
9	黃漫洙東遊錄	1636	黃湫	1636	1	국립중앙도서관	
10	趙龜洲東遊錄	1643	趙剛	1643	1	국립중앙도서관	
11	申竹堂海遊錄上	1643	申福	1643	1	국립중앙도서관	
12	南臺谷扶桑錄上·下	1655	南龍翼	1655	2	국립중앙도서관	
13	南臺谷閱見別錄	1655	南龍翼	1655	1	국립중앙도서관	
14	洪新士東遊錄	1682	洪禹象	1682	1	국립중앙도서관	
15	金新士東遊日錄	1682	金指南	1682	1	국립중앙도서관	
16	申育川海遊錄上·中·下	1719	申維翰	1719	3	국립중앙도서관	
17	扶桑錄	1719	金論	1719	2	국립중앙도서관	
18	隨遊日錄	1747	洪景海	1747	2	규장각	
19	奉使日本時間見錄	1747	曹命采	1748	2	규장각	
20	趙濟谷海遊日記一~五	1763	趙暉	1763	5	국립중앙도서관	
21	日觀記	1763	南玉	1763	4	국사편찬위원회	
22	日觀相綱	1763	南玉	1763	2	국립중앙도서관	
23	日觀詩草	1763	南玉	1763	2	국립중앙도서관	
24	日本錄	1763	成大中	1763	2	고려대도서관	
25	東遊錄	1763	元重拳	1763	5	고려대도서관	
26	遊錄	1763	閔應洙	1763	1	고려대도서관	
27	漢遊錄	1763	吳大齡	1763	1	국립중앙도서관	
28	癸未遊錄	1763	卞塚	1763	1	국립중앙도서관	
29	日東壯遊歌	1763	金仁謙	1763	4	규장각	
30	辛未通傳日錄	1811	金履喬	1811	3	충청남도 역사박물관	
31	淸山島遊錄	1811	金魯臣	1811	1	국립중앙도서관	
32	東遊錄	1811	柳相畝	1811	1	고려대도서관	

### 2. 기록화 (6건 9점)

NO	건명	사행연도	제작자	제작연도	수량	소장처	비고
1	仁祖2年通傳使行列圖	1624	작자미상	1624	1	국립중앙도서관	
2	仁祖4年通傳使入江戶城圖	1636	작자미상	1636	1	국립중앙박물관	
3	通傳使行列圖	1711	俠喜左衛門	1711	4	국사편찬위원회	
4	雄略勝區圖	1748	李聖麟	1748	1	국립중앙박물관	
5	倭船圖	1783	卞璣	1783	1	국립중앙박물관	
6	圖書接船圖	미상	작자미상	미상	1	국립중앙박물관	

### III. 문화교류의 기록 (19건 21점)

NO	건명	사행연도	제작자	제작연도	수량	소장처	비고
1	進賢新畫江圖	1636	金明國	1640년대	1	국립중앙박물관	
2	金世謙等筆跡(詩)	1636	金世謙 等	1636	1	국사편찬위원회	
3	俞瑞筆跡(詩)	1655	俞瑞	1655	1	국사편찬위원회	
4	金義魯書帖	1655	金義魯	17세기	1	부산박물관	
5	趙孝像	1711	狩野常信	1711	1	국립중앙박물관	
6	李明彦筆跡(詩)	1719	李明彦	1719	1	국사편찬위원회	
7	義軒·成夢良筆行書	1719	義軒, 成夢良	18세기	1	부산박물관	
8	芙蓉團扇屏風 1双	1748	狩野實信	1748	1	국립고궁박물관	
9	東樓唱酬集	1764	成大中	1764	2	국립중앙도서관	
10	墨梅圖	1764	卞璣	1764	1	부산박물관	
11	石蘭圖	1764	金有聲	18세기	1	부산박물관	
12	振氏物語團扇屏風	18세기	長谷川光君	18세기	1	국립고궁박물관	
13	秋丹團扇屏風	1811	狩野節信	1762	1	국립고궁박물관	
14	樂東益筆行書	1811	樂東益	19세기	1	부산박물관	
15	團扇	1811	李義美	19세기	1	부산박물관	
16	花鳥圖	1811	魏園	19세기	1	부산박물관	
17	山水圖	1811	松菴	19세기	1	부산박물관	
18	李義美筆山水圖	1811	李義美	1811	1	부산박물관	
19	李義美筆山水圖	1811	李義美	1811	1	부산박물관	

#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목록



## | 일본측 등재 신청 목록(안) \_ 총 47건 195점 |

### I. 외교기록 (2건 4점)

#### 1. 조선국서 (1건 3점)

NO	건명	사행연도	제작자	제작연도	수량	소장처	비고
1	朝鮮國書	1607 1617	尙馬藩作成	1607 1617	3	京都大学総合博物館	重要文化財

#### 2. 조선통신사 진상목록 (1건 1점)

NO	건명	사행연도	제작자	제작연도	수량	소장처	비고
1	正徳元年朝鮮通傳使進物目錄 毛利吉元宛	1711	通傳使	1711	1	山口県立山口博物館	重要文化財

### II. 여정의 기록 (27건 69점)

#### 1. 항응기록 (6건 37점)

NO	건명	사행연도	제작자	제작연도	수량	소장처	비고
1	朝鮮通傳使御記錄	1711	長州藩	1711·12	13	山口県立文書館	
2	福岡藩朝鮮通傳使御記錄 (朝鮮人來聘記ほか)	1763~64	福岡藩	1763·64	15	福岡県立図書館	
3	甲申韓人來聘記事	1763~64	尾張藩 (松平藩山)	1764	1	名古屋市蓬左文庫	
4	小倉藩朝鮮通傳使對馬島地 物記錄 (對州御下向海陸日記ほか)	1811	小倉藩	1811	6	福岡県立青龍館高校 鉤渡同窓会 小倉町歴史民俗 博物館寄託	福岡県 指定 文化財
5	朝鮮通傳使迎送所繪圖 (土肥家文書)			18世紀	1	土肥藩子(個人)	香南市 指定 文化財
6	江刺藩生那八幡町繪圖			1700頃	1	近江八幡市図書館	近江藩 指定 文化財

#### 2. 기록화 (17건 27점)

NO	건명	사행연도	제작자	제작연도	수량	소장처	비고
1	正徳度朝鮮通傳使行列圖卷	1711	尙馬藩 (御上門門3分)	1711	3	大阪歴史博物館	
2	朝鮮通傳使參着得路行列圖	1711	尙馬藩 (御上門門3分)	1711	4	(公財)高麗美術館	
3	宗牧馬守讓行帶路行列圖	1711	尙馬藩 (御上門門3分)	1711	4	(公財)高麗美術館	
4	延享五年朝鮮通傳使登城行列圖	1747~48	幕司某	1748	1	下関市立長府博物館	
5	朝鮮通傳使使巻(上下卷)		尙馬藩 寛永~ 宝暦度		2	長崎県立 対馬歴史民俗資料館	長崎県 指定 文化財
6	朝鮮通傳使使巻(文化史)		尙馬藩	19世紀	1	長崎県立 対馬歴史民俗資料館	長崎県 指定 文化財
7	天和度朝鮮通傳使 登城行列圖屏風	1682		17世紀	1	大阪歴史博物館	
8	朝鮮人來朝覽 備前御馳走船行列圖	1748		1748	1	吳市 (公財)松浦管理	吳市 指定 文化財
9	朝鮮通傳使船圖上開末繪圖	1763~64		18世紀	1	超尊寺	上関町 指定 文化財
10	正徳度朝鮮通傳使圖書 先導船圖屏風	1711		1711頃	1	大阪歴史博物館	
11	正徳度朝鮮通傳使 上々官第三船圖·同供船圖	1711		1712	2	大阪歴史博物館	
12	朝鮮通傳使御棧船圖屏風			18世紀	1	大阪歴史博物館	
13	朝鮮人物旗杖儀典之因	1811	猪飼正毅	19世紀	1	名古屋市蓬左文庫	
14	七五三盛付儀出帆之繪圖		尙馬藩	18世紀	1	長崎県立 対馬歴史民俗資料館	
15	朝鮮人御覽七五三膳部圖	1811	猪飼正毅	19世紀	1	名古屋市蓬左文庫	
16	馬上才因卷		広渡雪之進	18世紀	1	松原一征 対馬民俗資料館寄託	対馬市 指定 文化財
17	馬上才因		二代目 鳥居清信	18世紀	1	(公財)高麗美術館	

#### 3. 감상화 (4건 5점)

NO	건명	사행연도	제작자	제작연도	수량	소장처	비고
1	琵琶襖圖		円山応挙	1824	1	滋賀県立琵琶湖文化館	
2	朝鮮通傳使小童圖	1711	英一燦	18世紀	1	大阪歴史博物館	
3	釜山浦富士圖		狩野典信	18世紀	1	大阪歴史博物館	
4	朝鮮通傳使款待図屏風	1655	狩野益信	17世紀	2	泉壽寺	京都市 指定 文化財

### III. 문화교류 관계 기록 (18건 122점)

#### 1. 아메노모리 호수 관련 자료 (12건 36점)

NO	건명	사행연도	제작자	제작연도	수량	소장처	비고
1	兩森芳洲關係資料	1711 1719	兩森芳洲ほか	18世紀	36	芳洲会 高月町郷土の歴史史 民俗資料館寄託	重要 文化財

#### 2. 일본의 고사(故事)와 풍경을 주제로한 조선통신사 시문 (6건 66점)

NO	건명	사행연도	제작자	제작연도	수량	소장처	비고
1	通傳副使任守幹 壇浦横古詩	1711	任守幹	1711	1	赤間神宮	下関市 指定 文化財
2	福澤寺對海樓 朝鮮通傳使兩森芳洲 氏俗資料館寄託	1711 1747~48	趙孝彦 李邦彦 洪啓龍ほか	1711 1747·48	6	福澤寺 福山市朝鮮の浦歴史 民俗資料館寄託	福山市 指定 文化財
3	本蓮寺朝鮮通傳使詩書	1643 1655 1711	申璣 朴安期 趙珩ほか	1643 1655 1711	9	本蓮寺 岡山県立博物館寄託	瀬戸市 指定 文化財
4	朝鮮通傳使從奉官李邦彦詩書	1711	李邦彦	1711	1	本願寺八幡別院	近江幡豆 指定 文化財
5	清見寺朝鮮通傳使詩書	1643ほか	朴安期ほか	1643ほか	49	清見寺	静岡県 指定 文化財

#### 3. 학술교류의 기록 (6건 14점)

NO	건명	사행연도	제작자	제작연도	수량	소장처	비고
1	金明國筆 拾得圖	1636or43	金明國	1636or43	1	下関市立長府博物館	
2	波田嵩山朝鮮通傳使 唱酬詩並筆蹟	1763-64	南玉 成大中 元重拳	1763·64	6	波田嵩山 下関市立長府博物館 寄託	下関市 指定 文化財
3	轉客詞章	1711	趙孝彦ほか	1711	4	相國寺慈照院	京都市 指定 文化財
4	潘相八景四卷	1682	狩野真眞 李鶴賢實	1682	1	大阪歴史博物館	
5	寿老人圖	1636	荷澤淵 古賀禮重實	1636	1	大阪歴史博物館	
6	松下虎因	1763-64	卞璣	1764	1	大阪歴史博物館	

#### 4. 조선국외과 도쿠가와 장군, 조선통신사와 도쿠가와가·다이묘가의 교류 기록 (6건 6점)

NO	건명	사행연도	제작자	제작연도	수량	소장처	비고
1	朝鮮國王孝宗筆額字	1655	孝宗	1655	1	日光山輪王寺	栃木県 指定 文化財
2	東照社縁起(仮名本) 5卷のうち第4卷	1636	狩野探幽ほか	1640	1	日光東照宮	重要 文化財
3	東照社縁起(眞名本) 3卷のうち中卷	1636	親王·公家	1640	1	日光東照宮	重要 文化財
4	宝曆十四年通信正使趙暉書帖	1763-64	趙暉	1764	1	下関市立長府博物館	
5	任統詩書	1636	任統	1636	1	大阪歴史博物館	
6	朝鮮國三使口占聯句	1682	尹崑完 李彦綱 朴慶後	1682	1	名古屋市蓬左文庫	

# 통신사를 통한 상호 이해의 방식, 필담과 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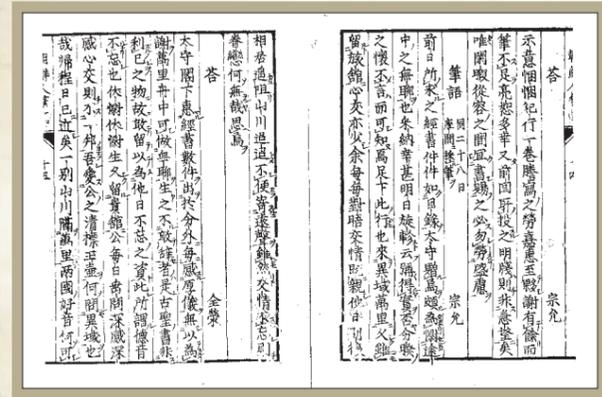
## 通信使を通じた相互理解の方法、筆談と唱和



구지현 · 선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具智賢 · 鮮文大 國語國文史學科 教授

朝鮮と日本の文士の間筆談と唱和は主君の命を受け、詩書画を頼むために始まった。また、儒学者たちが自分の漢文能力を証明するために、あるいは通信使から詩をもらうことで自分の名声を高めるために朝鮮人との唱和に積極的に乗り出した。このような唱和の要請は両国文士の活発な交流につながった。そして漢文による筆談は通訳をしなくて直接的な疎通のあり方として固まった。時間が経つにつれ、出会いの回数が増えて、単純な応対を超えて元重擧(ウォン・ジュンゴ)のように筆談を通じて相手の国を理解しようとする努力があった。通信使は直接的な対面、直接的な疎通による相互理解の重要な通路になっていたのだろう。

통신사행을 통해 일본과 이루어진 문화교류의 흔적 가운데 하나가 필담창화집이다. 사행록이 조선인이 남긴 관찰의 기록이라면, 이 필담창화집류는 일본인이 남긴 기록이기 때문에 양국인의 만남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각 사행 때마다 이루어진 필담창화의 기록은 횡수를 거듭할수록 늘어나서, 1763년 제미사행에 이르면 현전하는 것만 해도 45종에 이른다. 그만큼 많은 일본인들이 조선인과의 만남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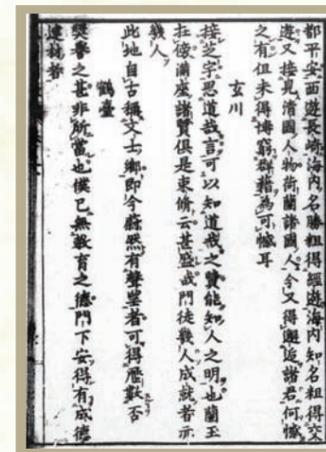
1636년 와다 세이칸카의 필담

### 주군을 위해 시서화를 부탁했던 와다 세이칸카 [和田静観窩]

1636년 통신사 일행이 에도에 머물 때 접대를 담당했던 다이묘는 다카사키번(高崎藩)의 안도 시게나가(安藤重長)와 이다번(飯田藩)의 와키자카 야스모토(脇坂安城)였다. 김세렴은 로주(老中)를 비롯한 많은 다이묘들이 와키자카를 통해 시와 글씨를 청하였고, 1, 2만 석 정도는 감히 청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런 고관들의 청을 뿌리치기 곤란했던 김세렴은 이문학관 권칙(權讖), 서기 문홍적(文弘績), 사자관 전영(全榮) 등에게 대신 쓰도록 하였다. 이때 하야시 라잔(林羅山)의 제자로 이다번에서 일하던 유학자 와다 세이칸카는 여러 차례 에도의 관소였던 혼세이(本誓寺)를 드나들면서 주군을 위해 시서화를 부탁하고 재촉하였다. 그는 사행록에 이름 없이 관반(館伴)의 사환(使喚)이라고 언급될 정도로 사행원들의 눈에는 낮은 신분으로 여겨졌다.

세이칸카의 경우 쓰시마의 통역 없이 필담을 통해 직접 조선인과 의사소통을 하였다. 그런데 이런 유학자들의 한문 실력은 시서화를 부탁하고 얻어내는 데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 권칙에게 편찬을 듣기는 했어도 세이칸카는 주군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탁한 글까지 얻어내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필담과 시가 기록된 것이 『조선인필어(朝鮮人筆語)』이다. 다음 통신사행 때인 1643년 간행되었던 이 책은 아마도 주군을 위해 시서화를 부탁해야 했던 다른 유학자들에게 전범이 되었을 것이다. 이 국적인 물건 수집에 열을 올리던 에도시대 분위기를 생각하면, 시서화를 부탁했던 다이묘가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고, 번에 고용된 유학자들은 세이칸카처럼 한문 실력을 통해 주군을 위해 봉사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행원들을 탐색해서 누가 글씨에 뛰어난지 누가 문장에 뛰어난지 탐색하는 것부터 적절한 필담을 통해 글과 글씨를 부탁하고 얻어내는 것까지, 다이묘의 명을 받은 유학자들의 임무가 되었다. 한편 이들에게 통신사 사행원과의 필담창화는 자신의 한문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였다. 사행원을 만나기 위해 늘어놓은 조선인에 대한 과장된 찬사와 지나친 겸손의 일면에는 외국인을 만날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들의 적극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1763년 다키 기쿠다이의 필담

### 1682년 시로 인정을 받았던 아라이 하쿠세키 [新井白石]

유학자는 본래 승려였다가 환속한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 이래 에도시대 새로 등장한 신흥계층이었다. 막부에 고용이 되어 외국문서를 다루게 된 하야시 라잔처럼 유신(儒臣)이라고 부르게 된 계층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또 기노시타 준안(木下順庵)처럼 제자를 배출해 번과 막부에 추천하는 명망 있는 유학자가 생겨났다. 외국 지식은 주로 한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도의 다이묘들에게 한문능력을 갖춘 지식인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민간에서 경전을 가르치다가 번



1764년 스카 도키노리의 필담

에 고용되는, 일종의 유학자 예비군도 생겨났다.

1682년 아라이 하쿠세키는 로닌과 비슷한 신분이었다. 그의 일기를 보면, 재취직한 지 얼마 안 된 26세의 나이에 쓰시마의 아비루(阿比留)란 인물과의 친분에 기대 제술관과 서기에게 자신의 시집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비루는 본래 쓰시마번 의사의 아들로, 쓰시마 도주의 허락을 받아 에도에서 유학하였다. 기노시타 준안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던 그는 쓰시마번에 돌아와 유학자가 되었다. 후에 성을 고쳐 니시아마 준타이(西山順泰)라고 하였는데, 1688년 그가 죽은 후 후임으로 온 사람이 바로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이다.

하쿠세키는 사행에 대비하여 미리 자신의 시 백 수를 편집한 『도정시집(陶情詩集)』을 아비루에게 맡겨두었고, 아비루는 통신사가 쓰시마에 도착하자마자 제술관 성완(成琬), 서기 이담령(李聃齡), 자제군관 홍세태(洪世泰)에게 읽어보기를 청하였다. 세 사람은 하쿠세키의 뛰어난 시재에 감탄하여, 에도에 도착해서 직접 불러 필담을 나누고 서문을 써주었다.

이후 아비루는 성완의 서문이 실린 시집을 스승인 준안에게 전하였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하쿠세키는 준안의 문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곧 스승의 추천으로 고후번(甲府藩)에 고용되었는데, 번주가 나중에 6대 쇼군이 된 도쿠가와 이에노부(德川家宣)이다. 막부에서 쇼군의 시강(侍講)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하쿠세키는 1711년에는 통신사의 접대를 지휘하였다. 아악을 연주하는 사연(賜宴)을 준비하고, 일본의 유학자들을 엄선해 조선 문사와 창화하도록 하였으며, 본인도 세 사신과 직접 만나 술을 나누며 필담을 나누었다. 쓰시마 유학자에 기대 제술관을 만났던 바로 전 사행과 비교하면 놀라운 신분 상승이라고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무명의 하쿠세키가 막부 중앙으로 진출할 계기는 제술관 성완의 서문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분이나 조건에 얽매이지 않은 순수한 평가는 사실 조선인이라서 가능했던 것이다. 한문을 문어로 사용하는 조선에서 온 문사들이 일본 내 사정을 모르는 채 글을 통해서만 상대를 평가했기 때문이다. 결국 조선인의 평가는 일본 내에서의 명성으로 이어졌다. 하쿠세키처럼 서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선인의 창화시 한 수가 일본 문사들에게는 능력에 대한 일종의 신용장과 같이 작용하였던 것이다.

### 1764년 원중거(元重擧)의 반성

통신사행이 회를 거듭할수록 조선인의 화답시를 받으려는 일반 문사들이 더욱더 늘어나, 1763년과 1764년에 걸친 계미통신사 때 정점에 이르렀다. 심지어 쓰시마인에게 뇌물을 주고 만날 통로를 여는 사람도 있었다. 제술관이었던 남옥(南玉)은 창수한 일본인의 이름을 모두 기록해 놓았는데, 500여 명 가량이다. 그 가운데 오사카와 에도에서 만난 사람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곳에서는 일본 문사들이 들이는 종이를 쌓아놓고 차례로 얼굴을 보며 대강 시로 구상하여 화답시를 써주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사람 이름을 바꾸어 쓰는 실수도 종종 일어나 일본인의 불만을 사기도 하였다. 일본인을 상대하는 것이 임무라고 여겨 성실히 수행하였지만 창화시를 써주는 일은 남옥 일행으로서 고달프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시간에 쫓겨 졸렬한 화답시를 일본인의 손에 남기는 것을 걱정스러워 하였다.

그러지만 일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이 좋았던 것 같다. 부사 서기로 사행에 참여했던 원중거는 유선자량(柔善慈諒)한 사람이 많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역관이 필요성에 의무를 제기한다. 왜학역관이 실제로 일본어를 제대로 못하는 반면 왜관의 쓰시마인들이 조선어를 잘하는 것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대사(大事)는 문자를 통해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사행 도중 일본인과 수많은 필담을 나누면서 내린 결론이었다.

원중거는 사행을 마치고 나서 필담의 문목(問目)이 훌륭했던 인물 첫 번째로 다이텐 겐조(大典顯常)를 꼽았다. 최천중 피살사건 때문에 일본인과의 창화를 거부하고 오사카에 체류할 때 만난 승려이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 느긋한 필담이 이루어졌다. 그 기록은 『평우록(萍遇錄)』으로 남아있다. 그 다음으로 꼽은 인물 가운데 하기번(萩藩) 메이린칸(明倫館)의 학두(學頭) 다키 가쿠다이(瀧鶴臺)가 있다. 고문사(古文辭)를 주장하여, 성리학적으로 가장 대립했던 인물로, 『장문계갑문사(長門癸甲問槎)』에 필담이 실려 있다.

그러면서 “승려 무리들은 필담을 하지 않는 날이 없지만 실어(實語)가 적”은데 필담했던 종이는 모두 가져다가 남에게 보여주고 그대로 간행한다고 비판하였다. 앞에서 공손하고 좋은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조선인의 문자를 손에 넣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을 비판한 것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일본의 실상을 알거나 이해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논쟁이 오가더라도 “실어(實語)”를 말하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그는 사행에서 필담이 중요한데 시문에 집중하느라 필담에 소홀했던 것이 매우 중대한 실수였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그의 일본 이해는 일본지리지 『화국지(和國志)』의 저술로 이어졌다.

전통적으로 사신으로 온 사람에게 먼저 시를 보내 화답시를 청하는 것은 예가 아니었다. 조선에 중국 사신이 오면 문장이 뛰어난 접반사(接伴使)가 배행했으나, 사신이 시를 짓기 전에 먼저 시를 짓지는 않았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창화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 하겠다.

어찌 되었든 시작이 주군의 명을 받들어 시서화를 부탁하기 위해서이든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창화시를 받기 위해서이든 일본문사들의 적극적인 창화 요청은 양국 문사의 활발한 교류로 이어졌다. 그리고 한문을 통한 필담은 통역을 거치지 않은 직접 소통의 한 방식으로 굳어졌다. 시간이 흐르고 만남의 횟수가 늘어가면서, 단순한 응대를 넘어 원중거처럼 필담을 통해 상대국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생겨났다. 통신사행은 직접 대면, 직접 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의 중요한 통로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 조선통신사의 흔적을 찾아서 - 오노미치[尾道]

## 朝鮮通信使の痕跡を探して - 尾道

今日の尾道地域の住民たちは地元泊まっていた朝鮮使節団の存在について知らない。主な舞台であった天寧寺はもちろん、地元のところにもその交流の痕跡が残っていないからである。しかし、異国の使臣に対する記録から尾道と朝鮮使節団の関係が明らかになっただけに、今後地元の住民や研究者がより関心を持つようになれば、回礼使や通信使の痕跡も発掘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う。



한태운 ·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韓泰文 ·釜山大 國語國文史學科 教授

### 1 1420년 회례사(回禮使) 송희경(宋希環)의 자취가 깃든 오노미치

차창이 담아내던 풍경에 빼앗긴 눈을 쓸어 담고 열차에서 내리니, '정성을 다한 접대의 고장, 오노미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나를 맞는다. 오노미치! 일본의 대도시 이름에만 익숙한 우리에게겐 참으로 생소한 고장이다. 최근 MBC 예능프로인 <나 혼자 산다>에서 가수 김동완이 산악자전거로 여행한 덕에 그나마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사진 1, 사진 2)

오노미치는 오늘날 히로시마 현에 소속된 5개 시 가운데 하나로, 히로시마 현의 동남부에 있는 면적 284.85km<sup>2</sup>, 인구 14만 명의 작은 도시이다. '오노미치 수로(水路)'로 대표되는 천연 양항(良港)을 지닌 까닭에 일본 무로마치(室町)시대에는 명나라와의 무역 거점으로, 에도(江戸)시대에는 운송선을 이용한 도매상이 즐비한 상업항구로 명성을 날렸다. 무엇보다 오노미치는 1420년 회례사 송희경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다.

오늘은 송희경이 오노미치에 머문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한다. 사행록은 물론 노정에 대한 기록조차 없어 확인할 길이 없지만 8년 뒤인 1428년, 최초의 조선통신사 박서생(朴瑞生)도 오노미치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 오노미치 개찰구 풍경  
2 오노미치 역 광장

### 2 비바람과 해적 때문에 사행길은 더디기만 하고

오노미치는 조선후기 통신사의 노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다. 그렇다고 조선전기 통신사의 노정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국내 노정도 전기와 후기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아득히 먼 부상의 길 / 만 리에 지친 몸이네 / 강 위의 하늘엔 가랑비 개었는데 / 바다엔 외로운 타향사람뿐 / 시름 속에 흥안은 늘어가고 / 시 읊는 사이 백발은 새록새록 / 조선은 구름 끝에 아득하기만 하니 / 언제 임금과 어버이를 뵈까  
- 송희경, 『일본행록』, <배에 내리는 빗속에서 회포를 적다(船上雨中書懷)>

4월 4일에 오노미치에 머문 송희경 일행은 비바람 때문에 무려 4일간이나 다음 노정지로 향할 수가 없었다. 비록 외양(外洋)에 비해 풍량이 약한 내해(內海)라 해도 상대적 차이일 뿐 기상 악화는 순탄한 사행을 가로막는 최고의 훼방꾼이었기 때문이다. 고향을 떠난 지 어느덧 3개월, 뱃길에 몸을 실은 지도 벌써 50여 일이나 지났다. 게다가 자신은 사행을 책임진 정사의 신분이라 어디 하루라도 맘 편히 쉬 날이 있었던가? 아직 국서도 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리는 억지춘향격의 망중환이 그리 반가울 리가 없다. 아니, 오히려 막막함만 더할 뿐이다. 그런데 송희경의 사행길을 더디게 만든 것은 비바람만이 아니었다.

외국에 오래 머무니 온갖 시름 모여드네 / 뉘 알랴 이 사이 행로가 어려웠음을 / 한 가닥 나팔 소리에 백발만 늘어가고 / 무수한 산 그림자 속에 흥안이 야위어가네 / 계림은 아득히 뜬구름 밖에 있고 / 넓은 바다 흐릿하게 낙조 사이에 있지만 / 머지않아 제포 아래 배를 대고 / 친구와 서로 만나 살아 돌아온 얘기 나누리

- 송희경, 『일본행록』, <소미도진(小尾津津)의 어구에 정박했는데, '해적선 18척이 돌아가는 길에 모여서 우리의 배를 기다려 식량을 요구하겠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바람도 또 순하지 않으므로 출발하지 못하고 20일을 머물렀다(小尾津津口留泊聞海賊十八隻聚歸路待吾船以乞糧爲言風又不順故不得發留二十日)>

송희경은 오노미치를 '소미도진'으로 적었다. 긴 시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올 때는 비바람이 오노미치에서 사행의 발을 묶

었고, 이제 돌아갈 때는 세토내해를 누비던 해적이 일본의 호송선 9척보다 갑절이나 되는 18척의 대선단으로 사행의 길목을 막고 선 것이다. 게다가 당시 오노미치는 해적들이 획득한 물화가 모이고 소비되는 대표적인 상업항구였다. 다행히 일본 접대관들이 해적과 교섭을 벌여 무사히 귀국길에 오를 수 있었지만, 산 평의 울음소리를 해적들이 호응하는 소리로 오인해 밤을 꼬박 새운 적도 있었던 사행이라 해적의 위협이 두려워 더딘 여정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하나를 잃으면 다른 하나를 얻는 게 인생사의 이치. 송희경은 여정이 지체된 대신 잘 알려지지 않은 오노미치를 구석구석 살필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 3 '절의 도시', 그 경관에 취하다.

햇살 가득한 역 광장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왼쪽에 '옛 절 순례 코스'가 펼쳐진다. (사진 3) 오노미치는 무려 81개의 사찰이 있었을 정도로 예로부터 유명한 '절의 도시'이기도 했다. 항구 도시이자 상업도시였던 까닭에 부유한 상인이 많았고, 이들이 다시 사업번창을 위해 신사와 사찰을 만들어 시주와 공양을 아끼지 않은 덕택이다. 오늘날에도 6개 종파 25개의 사찰이 있어 여전히 '절의 도시'로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지광사(持光寺)로부터 시작해서 만복사(萬福寺)로 끝나는 순례 코스의 안내판에는 무려 34개의 관광 포스트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 4)



3 역 광장 앞 옛 절 순례코스 안내표식  
4 옛 절 순례 출발점 안내판

- 5 천녕사 삼중탑 모형
- 6 오백나한당의 나한상
- 7 상청사



빼어난 전각의 천녕사 / 강을 내려다보는 탑 몇 층이나 될꼬 / 문 앞에는 상인과 손님으로 시  
끄러운데 / 마루에는 참선하는 중이 좌정했네 / 대나무 그림자 섬돌을 푸르게 물들이고 / 소나  
무 소리조차 자리에 들어 조용하니 / 따로 꽃나무 우거진 섬을 찾으랴 / 너무나 기이하여 흥이  
절로 일어나네.

- 송희경, 『일본행록』, 《천녕사(天寧寺)》

송희경이 오노미치에 도착해 제일 먼저 들른 천녕사에서 읊은 시다. 천녕사는 1367년 오노미치 출신인 만대도원(萬代道圓)이 아시카가 타카우지[足利尊氏]와 그 아들 요시아키라[義隆]의 뜻을 받들어 세운 것으로, 아마도 송희경이 묵었을 숙소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천녕사가 원래 막부의 관사(官寺)였던 데다 당시 사행원이 묵었던 곳은 대체로 지역의 대표사찰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송희경이 오갈 때 모두 시를 남긴 유일한 곳이다. 강을 내려다본다던 탑은 달리 '해운탑(海雲塔)'으로도 불리는 천녕사 삼중탑을 일컫는 것으로, 1388년에 건립되어 현재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사진 5) 특히 천녕사는 절 입구에 철길이 가로 놓여 있고 그 아래 도로를 건너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 "상인과 손님으로 시끄러운" 예전의 분위기와 그리 다르지 않다. 석가여래를 모신 본당 앞에는 '오백나한당' 이 있다. 에도시대부터 메이지 초기까지 60년간에 걸쳐 종파와 지역을 넘어 신자들이 바친 526체의 목조채색 나한상이 모셔져 있다. 규모도 규모거니와 형상이 제각각이라 더욱 이채롭다.(사진 6)



8

천녕사를 나와 송희경이 목욕하고 주지로부터 차 대접을 받았다는 상칭사(常稱寺)로 향한다. 1353년에 새로 세운 절로 송희경이 "스님은 차 마신 후 문 닫고 자는데 / 판잣집 절 대문이 소란한 가운데 있네" 라고 읊었듯이, 절의 문이 민가의 문 사이에 끼어있고 바로 앞에 철로가 놓여 있다.(사진 7) 그때처럼 스님은 자고 있는지 아무리 인기척을 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할 수 없이 616년 쇼토쿠태자(聖德太子)가 새로 세운 정토사(淨土寺)로 향한다.

정토사에 들어서자 아미타당 옆에 세워진 높이 22m의 다보탑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탑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다보탑이자 3대 명탑(名塔)으로 손꼽힌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오노미치 기념엽서나 관광안내 표지에도 오노미치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송희경도 "봉우리들은 우뚝 솟은 탑을 둘러고 / 소나무 대나무는 층층다리에 그늘을 드리운다" 고 읊었다.(사진 8)

정토사를 나와 경사로를 따라 조금 올라가니 해덕사(海徳寺)가 얼굴을 내민다. 송희경이 "물 속에 들어가서 흠을 쌓아 배치한 것으로 사면이 모두 바다" 라고 소개했던 곳이다. 1287년에 개창한 절로 바다 위의 섬에 있어 '바다의 도량' 으로 불렸던 곳이지만, 지금은 산기슭에 놓여 있다. 의아해하던 내게 주지 스님은 1926년에 화재로 타버려 1928년에 현재의 장소로 옮겨 왔다고 알려준다. 그리고 친절하게 나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 해덕사의 옛 위치와 함께 오노미치의 이곳저곳을 소개해 준다. 그야말로 오노미치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가슴이 탁 트이는 경관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사진 9)



8 정토사 본당과 다보탑  
9 해덕사에서 바라본 오노미치 풍경

#### 4 지역 스님들과 펼친 교류의 한 마당

예로부터 한일 간 교류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비롯되었다. 비록 비바람과 해적을 피해서 역지로 머문 곳이라 할지라도 송희경은 오노미치 지역민들과 만나 그들과 인정을 나누었다.

곁에 해운산이 있고 산 위에 천녕사가 있는데, 주지인 주면(周冕)과 범도(梵道) 두 스님이 비록 언어가 다르지만, 더불어 말할 만한 자였다(…) 나와 두 스님이 함께 만나 선방(禪房)과 배 위에서 여러 날을 좇아 따랐다. 혹은 송죽(松竹)을 읊조리고, 혹은 바다와 산을 바라보며 함께 태평한 때를 즐겼으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

- 송희경 『일본행록』, 7월 8일 《천녕사 주지 범주와 종로 범도에게 시를 바치며(贈天寧寺法主主冕衆僧梵道詩序)》

돌아오는 길에 머문 오노미치에서 천녕사의 두 스님과 여러 날을 절과 배를 서로 오가며 시문을 주고받았음을 보이는 대목이다. 송희경은 사행 내내 일본 곳곳마다 신을 모신 사당이 즐비하고 비단 장삼을 입은 스님들이 부자들로부터 밥을 대접받는 것에 반감을 품었다. 그런 그가 이들 스님을 "더불어 마음속 말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은 이들이 세상을 미혹시키지도, 자기 이익만 탐하지도 않는 청정한 수행자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송희경은 이들을 "이야기 나누다 붓을 쥐면 야광주 같은 시구가 되고 / 참선 마치고 종을 치며 독경 소리까지 맑다" 고 하거나, "일본의 수두룩한 절 가운데 / 스님 같은 이 보기 매우 어렵네" 라고 극찬하고 있다.

#### 5 답사를 마치며

오늘날 오노미치의 지역민들은 자기 고향에 머문 조선 사절단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주 무대였던 천녕사는 물론 지역의 향토지에서도 전혀 그 교류의 흔적을 살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국 사신의 기록을 통해 오노미치와 조선 사절단의 관계가 드러난 만큼 앞으로 지역민과 연구자가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회례사는 물론 통신사의 흔적도 발굴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부산의 중구가 2013년 5월 24일 오노미치와 우호 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 그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 한지인형전은 미래의 가교!

## 韓紙人形展は、未来の架橋!

韓紙人形展は、静岡市が実施する「徳川家康公顕彰四百年記念事業」に合わせ開催されました。韓紙人形は、眉毛や口、下着など細部まで韓紙で丁寧に作成しているところに驚きと一体一体の表情や仕草に違いがあり、制作者のご苦労や掛ける思いを見て取れました。

私たちは、今後釜山文化財団並びに素香會の皆様と更なる交流の輪を広げながら、「世界ユネスコ記憶遺産の完全登録」を目指した活動と、朝鮮通信使の精神を継承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AYU드림”은 2005년 ‘우리들 손으로 마을 만들기(自らの手でまちづくりを)’ 라는 기본정신으로 지역활성화와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 마을 만들기 활동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활동 초기에 시즈오카(静岡)시 오키즈자교소(興津坐漁荘) 운영의 위탁을 시작으로, 각종 이벤트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가 살고 있는 오키즈(興津)라는 지역에는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조선통신사의 숙박지였던 세이켄지(清見寺)를 비롯하여, 팔소 제조(팔소의 고향), 주조소, 간장 양조장 등 수많은 역사적 자산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이켄지는 우리 지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지속적으로 공부하며 각종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2005년 오키즈 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조선통신사 재현행사



아메미야 료코 · NPO법인 아유드림 이사장  
雨宮 令子 · NPO法人AYUドリーム理事長



사업’은 당시 아이들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이후 해를 거듭해가면서 오키즈지역 연합자치회(마을 만들기 중심단체)와 힘을 합쳐 아이부터 어른까지 참가할 수 있는 지역의 큰 연간행사로 발전시켰습니다.

올해는 AYU드림이 설립된 지 11년째 되는 해이고, 때마침 조선통신사와 관련 깊은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서거 400년째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시즈오카시가 실시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공 현창 400년 기념 사업’의 개최와 맞물려, 조선통신사를 소재로 한 이에야스공의 집대 ‘뱃놀이’를 대신하여 집대음식을 재현하는 등 우리 지역의 역사를 근거로 하는 각종 사업을 개최했습니다.

이렇게 조선통신사를 지역의 자랑스러운 자랑으로 키우려는 작업을 긴 시간 지속해 온 우리의 활동이 시내(市内)에 널리 알려졌고, 시즈오카시에서 올해 9월 시미즈(清水) 문화회관 마린아트와 자교소(坐漁荘)에서 실시한 ‘조선통신사 행렬 한지인형전’의 협력의뢰를 받았습니다.

운영과 전시방법, 설명문의 제작 등 준비단계부터 관여할 수 있었고, 우리도 다시 한 번 조선통신사를 공부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역의 자랑과 한일평화, 그리고 우호의 역사에 대하여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지 인형은 소향회(素香會)가 양국의 관계 개선과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 한일 공동등재를 기원하며 1711년 통신사 행렬을 기록한 ‘등성행렬도’를 근거로 제작한 것입니다.

약 1,000개의 한지인형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길이 약 110m의 전시대가 필요했고, 그 규모는 머릿속 이미지만으로 훌륭한 전시가 될 것이라 상상되었습니다. 관람객들이 놀라워하는 모습과 감탄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준비단계부터 들뜬 마음이었습니다.

9월 14일, 70개 이상의 상자에 담겨진 인형들이 먼 곳에서 화장까지 도착했습니다. 인형을 제작한 소향회가 전시를 위해 멋있게 진열을 마무리했고, 전시회장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그려온 상상 이상의 놀라움과 당시 국가적인 일대 이벤트였던 장대한 조선통신사 행렬이 어느 정도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빨리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음날인 9월 15일에 개회식(오프닝 세리모니)이 개최되었고,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관람객이 전시장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내빈인사 및 테이프 커팅식이 끝나고 드디어 조선통신사 한지 인형 전시가 개최되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온 관람객의 대부분이 한지인형의 훌륭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 했고, 필자가 상상하던 그대로의 반응을 보여 주었습니다.

인형들의 눈썹과 입, 속옷 등 세밀한 부분까지 한지로 정성스럽게 제작된 것을 보며 놀라움과 함께, 인형 한 개 한 개의 표정과 몸짓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향회 모든 분들의 고생과 어떠한 마음으로 제작을 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형이 말해 주는 당시의 활기 가득한 모습을 상상하며 관람객들에게 큰 '공감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전시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이 전시처럼 당시에는 양국이 함께 행렬을 했군요. 우호와 평화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에도(江戸)시대의 풍정(風情)에 대해 배울 점이 많습니니다" 라는 감상을 들려 주었습니다. 양국이 더욱더 국제교류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관람객이 많았던 점은 행사를 준비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또, 관람객 중에는 이번 한지인형전의 훌륭함에 감동을 받아 몇 번이나 보러 온 분들, 지인에게 권유하여 다시 방문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마리나트 전시장에 11일간 총 4,000명이 방문하여 주었습니다.

호평을 받으며 종료된 마리나트의 전시는 9월 27일부터 조선통신사와 관계가 깊은 세이켄지(清見寺) 근처의 자교소에서 계속해서 전시되었습니다. 자교소의 협소한 전시공간으로 인해 인형의 수를 줄여서 전시하였고, 과연 많은 관람객이 보러



올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러한 생각은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시작해 보니 마리나트를 방문한 분들과 마리나트에서 관람하지 못한 분들 등, 예상을 훨씬 넘어선 관람객이 방문해 주었고, 한지인형전의 인기와 함께 소향회에서 제작된 인형의 매력에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고장의 역사 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조선통신사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번 인형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양기 선생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협력을 받으며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던 점 감사드립니다.

일본 각지에서 조선통신사 관련 사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일반 사람들에게 '조선통신사'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통신사 사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하여 이 에야스공과 조선통신사의 위업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3월은 한일공동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 한일 공동 등재 신청'이 있고, 한일 상호 간의 이해와 함께 민간차원에서의 교류와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유네스코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작 중이어서 이번 전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인형들도 완성되어, 완전한 조선통신사 행렬이 한지인형으로 재현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한국과 일본의 많은 분들이 관람하여 평화와 우호의 역사를 배우며, 상호이해를 한층 깊게 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 줄 것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한지인형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부산문화재단 및 소향회 여러분과 더욱더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고 싶습니다.



# 조선통신사 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록' 기원



## 朝鮮通信使の記憶遺産「日韓共同登録」の祈願

12月8日(火)ノリマルの国際会議室で朝鮮通信使の世界記憶遺産日韓共同登録の推進経過報告会が開催された。2012年5月釜山文化財団が日本側に朝鮮通信使を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に共同登録を提案した後、民間協議などを経て、2014年6月にユネスコ共同登録推進委員会が発足され、業務協議と学術会議を重ねた末、この日に至って申請書の最終案が確定されたのである。政府の主導ではなく、両国の民間団体が手を結び、政治・外交的な問題を乗り越えた上に成し遂げた成果であるため、その意味は一層大きかった。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은 양국이 대립과 갈등을 넘어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세계에서 그 유례가 드문 만큼 인류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이다.” –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배경과 의의에 대한 한국 학술위원회 강남주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국 측 등재대상 목록은 외교기록 2건, 여정의 기록 38건, 문화교류의 기록 19건 등 모두 59건 120점이다. 일본 측 역시 외교기록, 여정의 기록, 문화교류의 기록 등 모두 47건 195점이다.

새해 1월 일본 쓰시마에서 기록유산 공동등재 조인식을 갖고, 3월 유네스코 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일정 등을 남겨놓았다.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아시아 국가가 공동으로 최초로 신청하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 기록유산 등재 여부는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의 현장 실사와 심의를 거쳐 2017년 7~8월 중에 결정된다. 조선통신사는 대립과 갈등의 난기류에 휩싸인 오늘날의 세계 상황을 푸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그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꼭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과 관련, 한국에서는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 일본에서는 조선통신사 연구지 16개 지자체 및 관련 단체로 구성된 NPO법인 '조선통신사 연구지 연락협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두 나라 학술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관계자들의 열정과 헌신의 결과로 좋은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 누구보다 강남주 한국 학술위원회 위원장과 마츠바라 가즈유키 조선통신사연구지연락협의회 이사장의 사명감이 큰 밑거름이 되었다.



최화수 · 봉생문화재단 부이사장  
崔和秀 · 奉生文化財團 副理事長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록'을 기원합니다.] – 지난 12월 8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등재 추진경과 보고회'의 대미를 장식한 액자이다. 이문섭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남주 한국 학술위원회 위원장, 마츠바라 가즈유키 조선통신사연구지연락협의회 이사장, 나카오 히로시 일본 학술위원회 위원장이 조선통신사 기록유산의 '한·일 공동등재'를 위해 각자 붓을 들고 함께 쓴 액자를 높이 들었다.

'한·일 공동 등록' – 한·일 두 나라 대표가 함께 쓴 액자를 든 모습은 남다른 감회를 갖게 했다. 지난 2012년 5월 부산문화재단이 일본 측에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제안한 뒤 민간협의 등을 거쳐 2014년 6월 유네스코 공동등재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업무협약과 학술회의를 거듭한 끝에 이날 신청서 최종안을 확정하는 것이다. 정부나 관(官) 주도가 아니라 두 나라 민간 단체가 손을 맞잡고 정치외교적으로 경색된 상황을 뛰어넘어 이룬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등재 추진경과 보고회

지난 2002년 출범한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강남주 집행위원장은 1994년부터 막역한 사이의 마츠바라 가즈유키 이사장과 지금까지 '조선통신사 부활운동'을 펴왔다. 두 분은 조선통신사 역관 현덕운(玄德潤)과 아메노모리 호슈의 '성신지교(誠信之交)'를 연상케 한다. 훈도(訓導) 청사 당호를 '성신당(誠信堂)'이라 쓴 현덕운, '성신당기(誠信堂記)'를 쓰서 화답한 아메노모리, '진실한 마음을 갖고 서로 속이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의 그 '성신'이 이번 기록유산 공동등재 사업에서도 든든한 주춧돌이 된 듯하다.



# 2015 조선통신사역사관

## 2015 朝鮮通信使歷史館

### ● 조선통신사 문화전승 1일 체험 학습



부산문화재단과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공동 주관으로 상반기에는 고등학생, 하반기에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선통신사 문화전승 1일 체험 학습을 개최하였다. 역사관을 둘러보며 체험학습지를 풀어보고, 골든벨 퀴즈를 통해 5명의 학생을 선발, 복식체험을 진행하여 중·고등학생들에게 조선통신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알리는 시간이었다.

### ● 토요역사교실 <기특한 아침>



상반기(2015. 3. 14~6. 27)와 하반기(2015. 9. 5~2015. 12. 12)를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초등학생들에게 주말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토요역사교실<기특한 아침>”을 개최했다. 부산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올해는 구연동화 강사의 인형극, 노래, 율동으로 조선통신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였다.

### ● 명작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북한문화 공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7, 8월 어린이들의 여름 방학 기간에 맞추어 “명작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 5회 짝을 맞는 이 행사에는 유원생, 초등학생 등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하였으며, 호평을 받은 3D 영화 및 애니메이션을 상영함으로써,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 조선통신사 발길따라(영천, 경주)



문화교류의 중심이었던 조선통신사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10월 26일(월)~27일(화) 양일간 조선통신사 연구지역 영천과 경주를 탐방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부산 학생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30명을 모집하여 조선통신사가 지나갔던 영천과 경주를 직접 탐방하면서 한일

### ● 조선통신사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사실을 익혀 이해를 돕고 통신사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1월 19일(목)~20일(금), 11월 26일(목)~27일(금) 총 4회에 걸쳐 조선통신사 인문학 강좌 “조선통신사 이야기”가 개최되었다. 4명의 강사들이 각자 다른 주제로 다양한 내용과 관점으로 재미있는 조선통신사 강의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강의를 선택

### ● 독수공방



11월 28일(토)~29일(일) 6일간 6편의 독립영화를 상영하였다. 6편의 영화 중, 수요일에 상영된 “미스진은 예쁘다”와 “나비와 바다” 영화는 감독이 직접 참여하여 영화 상영 후 관람객들과 함께 “감독과의 만남”을 진행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독립영화제를 개최하였다. 평상시 접하기 힘든 독립영화를 상영하고 감독과의 만남을 통한 문화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독수공방(독립영화 감독과 함께하는 수요일 독립영화 공방)”이라는 타이틀로 11월 18일(수), 11월 21일(토)~22일(일), 11월 25일(수),

# 에도시대 문인화가 구사바 하이센[草場佩川]을 매료시킨 조선통신사 행렬

## 江戸時代の文人画家である草場佩川を魅了させた 朝鮮通信使行列



박화진 · 부경대 사학과 교수  
朴花珍 ·釜慶大 史学科 教授



그림 출처

- 1, 2. 쓰시마일기(津島日記) 중이, 목서, 목화, 담채, 3책 25,0x16,7, 『마음의 교류 조선통신사』, p29
- 3. 고매도(古梅圖) 중이, 목화, 1폭, 132,5x58,3, 『마음의 교류 조선통신사』, p147

에도시대 후기 일본의 유명한 유학자이자 화가였던 구사바 하이센[草場佩川, 1787~1867년]은 히젠(肥前, 현 사가현[佐賀県]) 출신의 유학자로서 사가번(佐賀藩) 주군의 교사 및 홍도관(弘道館) 교수로도 취임하였는데 홍도관에서는 훗날 메이지 정부의 주역이 되는 많은 정치가들(大隅重信·副島種臣·大木喬任·江藤新平)을 배출하기도 했다. 그는 1810년(文化 7년) 에도로 올라가 관정(寛政)기(1789~1801년) 일본의 3대 박사로 손꼽히던 대학자, 고가 세이리[古賀精里, 1750~1817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1811년 조선 후기 최후 통신사행 때 조선통신사 영접역을 맡게 된 스승 고가 세이리에 동행하여 쓰시마로 건너왔다.

그는 평소 한시에도 매우 뛰어난 자질을 보여 63세 무렵 이미 시를 15,000여 수나 지었으며, 조선통신사 일행들과도 필담창화를 통해 문명(文名)을 날렸다. 그의 문장과 회화 재능은 조선에까지 널리 알려졌던 모양으로 통신사 일행들 중에 그에게 서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림 1〉, 〈그림 2〉는 쓰시마에서 역지빙례로 거행되었던 신미통신사 접대를 기록한 일지 즉 『쓰시마일기(津島日記)』 일부로서, 1811년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국서 교환과 통신사의 귀국을 지켜본 후 7월 4일 자신들이 쓰시마를 떠날 때까지 약 2개월 동안의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각종 그림지도도를 비롯하여 통신사 행렬, 조·일 양국의 국서 및 그 봉인 방법, 통신사 복식과 소지품들, 많은 배들에 예인되어 귀국길에 오르는 통신사 선박(〈그림 2〉) 등의 내용은 다른 조선통신사 관련 자료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귀중한 기록들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림 3〉은 구사바 하이센이 그린 <고매도(古梅圖)>이다. 남종화(南宗畵)의 묵죽도(墨竹圖)를 즐겨 그렸던 구사바 하이센이 그림을 그리고, 스승 고가 세이리가 상단 우측에 이테이안[以庭庵] 승려에게 보내는 찬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호방하고 자유로운 화풍으로 그려진 매화의 묵화를 감상할 수 있다.